지상백고좌

반야불교연구원장 요산 지안 대종사

“존재 중심은 마음…마음이 생기면 法이 생긴다”

12면에 이어

지안 스님은 2011년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창립했고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종교는 신앙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을 자주 다니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하는 말이, 일본은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들은 6할이나 7할이 불교를 강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마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아마 한 명도 안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연구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지식인들에게도 불교가 바로 전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스님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신도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수준 높은 불교 강좌를 열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주위 불자 교수들이 ‘연구원을 만들라’는 조언을 해줬고,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창립으로 이어졌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강좌를 15년 동안 개최해오고 있다. 매년 세미나도 열고 있다. ‘반야불교 학술상’을 만들어서 매년 9월에 시상식을 하는데 올해로 14회를 맞이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불교와 인문학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대학교 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으며, 강의 테마는 개강할 때마다 달라진다. 2024년 봄에는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테마로 강좌를 열었는데, 70명이나 등록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해에 학술지 〈프라즈냐(prajna)〉를 창간했다. 학술지 명칭인 ‘프라즈냐’는 깨달음에 이르는 뛰어난 지혜인 ‘반야(般若)’를 의미한다. 학술지를 창간한 배경과 지향점이 궁금했다.

“〈프라즈냐〉에는 논문 주제는 자유로이 쓰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 원고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논문도 있어요. 원고 주제들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 전쟁, 질병 및 계층 간의 갈등과 기계문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불교에서 찾아보는 기획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불교의 지성화’를 주창하는 지안 스님에게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먼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삶의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음의 정체에 대해 가장 차원 높은 이론적 설명을 해놓은 책이 〈대승기신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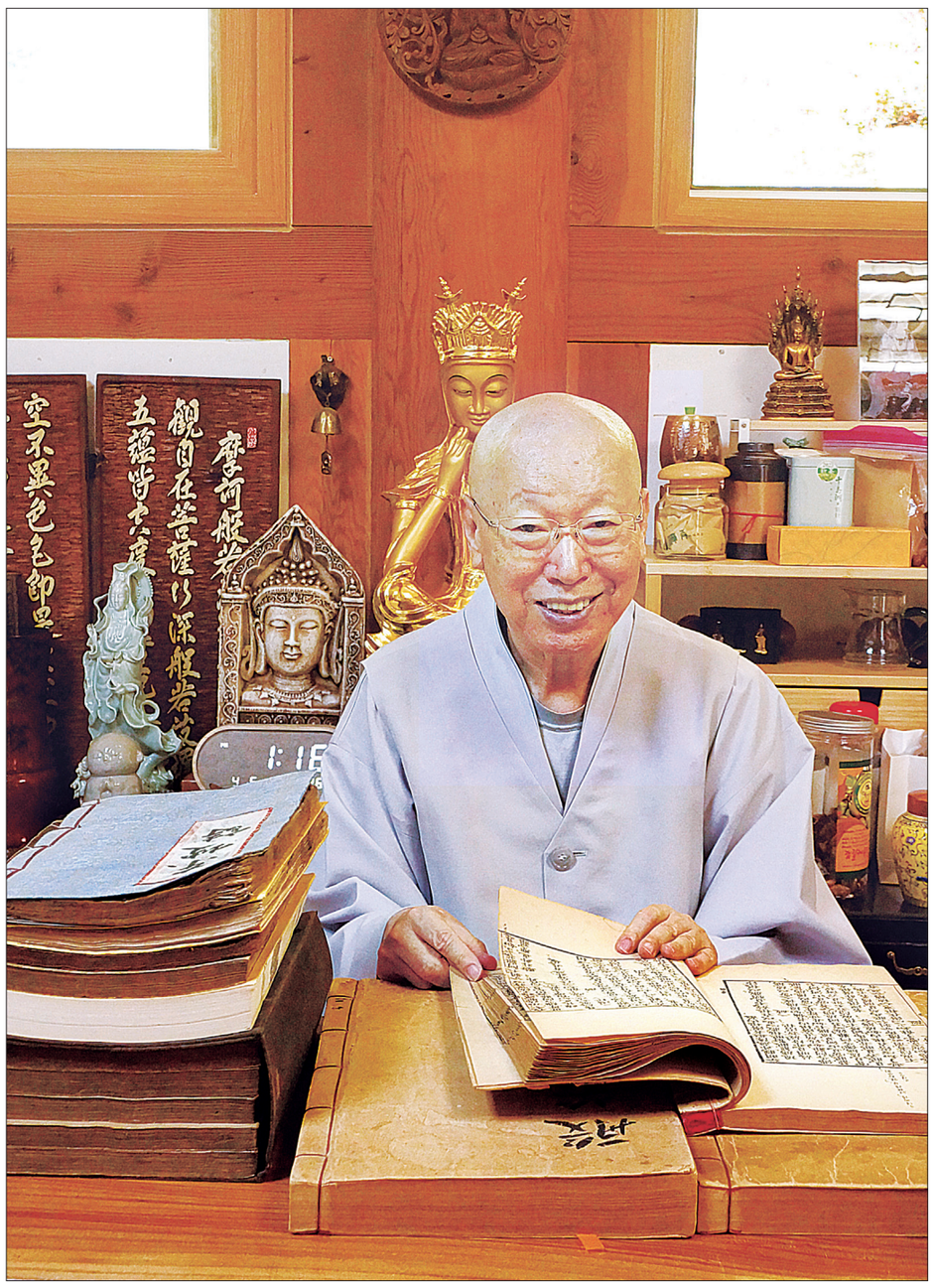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일체분별 불별자심(一切分別 分別自心), 일체 법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망령된 생각에 의해 차별이 생기므로 결국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빚어낸 경계가 마음 밖에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을 따라 생기고, 마음을 따라 없어지는 법의 허망성이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아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법이 없어진다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체 법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
모든 분별,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
마음 빚어낸 경계, 마음 밖에 있지 않다

지안 스님께서는 〈금강경〉을 2만여 번 독송했다.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경안이 열리게 된다”는 게 지안 스님의 설명이다. 세종대왕의 독서법은 어떤 책이든지 백독을 하는 것이었단다. 어려운 경전도 백 번을 읽으면 이해하게 되니, 경전도 다라니 외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 독서에 대한 스님의 철학이다.

실제 지안 스님의 글에는 플라톤,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프로이트 등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한다. 독서의 철학이 남다른 만큼 그 스펙트럼도 폭이 넓다. 스님은 “별로 대단한 건 아니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지요. 중학생 때는 수업 마치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책에 빠져 살았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요.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긴 하지만, 주위에서 ‘도서관의 책은 거의 다 읽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습이 남아있어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전 만큼은 책을 읽지 못해도 지금도 매일 2~3시간은 책을 보면서 생활합니다.”



지안 대종사가 경전을 읽고 있다. 〈금강경〉을 2만 번 독송한 지안 스님은 “어려운 경전도 백 번 읽으면 경안이 열린다”고 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좋은 습은 익히기 어렵지만, 한 번 몸에 밴 좋은 습관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된다.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마음과 시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여 법문을 청했다.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생멸심이라 합니다. 생멸심이 곧 시간입니다. 생멸심에 의해 시간의 장단이 느껴지지요. 잠을 잘 때는 시간을 못 느끼는 것처럼 생멸심을 여읜 선정 상태에서는 시간의 장단이 없어요. 번뇌가 있는 마음에서는 길고 짧은 시간 의식이 일어나지만 삼매에 든 상태에서는 시간을 느끼는 의식이 없어져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곧 생각입니다. 시간의 단위 중 ‘찰나’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로 번역하면 염(念)이 됩니다. 1찰나가 일념입니다. 1찰나에 900생멸이 있다고도 합니다.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1초에 75찰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시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은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스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사바세계에서 시간은 중생들의 업보가 들어있어 겁탁(劫濁)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겁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며 천재지변에 의한 재앙이 일어난단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고와 사회에 물의를 빚는 일들, 또 거대한 재해 등이 모두 시간이 오염된 결과이지요. 반면에 이 시간의 오염을 해소하는 일은 무상(無常)을 깨닫고 시간 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찰나무상을 통해 헛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참자아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제도하는 길입니다.”

생각이 오염되면 시간이 오염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수행한다는 것은 자성청정심을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을 닦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의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벌겋게 달아있는 난로 속으로 들어가면 될게야’라고 답했어요. 더워 죽겠다는 사람에게 뜨거운 난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엉뚱하기 짝이 없지요. 큰 더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작은 더위쯤은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겠지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크게 먹으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을 크게 먹고 살면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큰 마음을 가져라는 가르침입니다. 크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큰마음으로 크게 행하면 아플 일이 없지요.”

부처님오신날 즈음인 만큼 지안 스님께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청했다.

“우리가 등을 켜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리이타는 밝은데서 나옵니다.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인생관이 되어야 하며, 내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마친 지안 스님은 환히 웃어보였다. 스님의 미소엔 말씀하신 ‘밝은 마음’이 담겨있는 듯했다. 반야암의 계속 물소리도 밝고 청아했다.

문윤정 / 작가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